

# 디지털 도서관 담론 속에서 우리 학교도서관의 길 찾기

## Reflections on the Discourse on Digitizing School Library in Korea

김 종 성(Jong-Sung Kim)\*

### 목 차

- |                                  |                                 |
|----------------------------------|---------------------------------|
| 1. 들어가며- '왜' 라고 묻기               | 3. 다시 원점에서 길 묻기                 |
| 2. 디지털 학교도서관 담론의 맥락적 오류를 경계하며    | 1) 학교도서관 활동의 실체는 무엇인가           |
| 1) 인쇄매체 중심의 학교도서관 현상은 존재하는가      | 2) 실물 장서와 현실 공간의 의미는 경시해도 되는가   |
| 2) 디지털 도서관이 더 우월한 체제인가           | 3) 사서교사의 설 자리는 어디인가             |
| 3) 미국 학교도서관 현실이 우리의 교과서가 될 수 있는가 | 4. 나오며- 지금 우리 학교도서관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

### 초 록

디지털 도서관 담론이 학교도서관 분야에도 예외 없이 형성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디지털 학교도서관 담론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맥락적 오류를 검토하여 그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고 나아가 우리 학교도서관이 온전히 그 기능을 회복하는 길을 그 본질적 원리에 천착하여 탐색한다.

### ABSTRACTS

This study criticizes aspects of discourse on digitizing school library in Korea. What the writer emphasizes is reinforcement of school library based on physical resources, real space, and human elements.

---

\* 부산대 문헌정보학과 강사  
접수일자 2000년 6월 2일

## 1. 들어가며- '왜' 라고 묻기

디지털 세상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디지털 담론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해야할 것이다. 컴퓨터 통신 테크놀러지가 주도하는 디지털 기술과 관련한 담론은 사회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아젠다가 된지 오래다. 모든 미래의 전망에는 디지털이 빠지지 않는다. 마치 봄바람에 날리는 꽃가루처럼 디지털 담론이 대기를 가득 채우고 있는 듯하다.

필자가 세상에 가득한 디지털 담론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그것은 이미 한 사람의 작은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담론의 수준과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그것은 현실의 기술로서 튼튼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가 이 글을 통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디지털 기술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의 진보를 부정하거나 막아보려는 가당찮은 의도는 추호도 없다는 것이다. 다만 필자가 이 글을 통해 고민하고 성찰하려고 하는 것은 디지털 기술을 수용하는 입장과 자세에 관한 것이며, 나아가 디지털 기술의 조류에 전복 당하지 않고 생존하는 길에 관한 것이다. 학교도서관이라는 현실의 구체적인 제도가 디지털 기술의 강한 바람 속에서 지속적인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색하려는 것이다.

우리 학교도서관은 이미 오래 전부터 왜곡된 교육 구조 속에서 그 운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디지털 바람과 같이 새롭고

강력한 외풍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많은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우리 학교도서관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세심하게 쏟아 부을 것을 촉구하는 프로퍼젠더의 성격을 내포하기도 한다.

디지털 도서관 담론 속에서 우리 학교도서관의 길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질문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디지털 도서관 담론을 구성하는 모든 질문들은 '어떻게'에 관한 것이다. 컴퓨터나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테크놀러지를 '어떻게' 이용하면 도서관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지기 전에 '왜'라는 질문을 먼저 하는 것이 옳은 순서가 아닐까 생각한다. 도서관에서 '왜 컴퓨터를 사용하고 인터넷을 사용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떻게'에 관한 질문은 주로 '기술적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반면에 '왜'에 관한 질문은 주로 '정치적·경제적·윤리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때문이다.<sup>1)</sup> 도서관의 기능과 사명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들은 '왜'에 관한 질문을 통해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 도서관계와 문헌정보학계의 디지털 담론은 주로 기술적인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육 영역에도 이러한 현상은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두고 큐파로(H. Cuffaro)는 '질문의 순서가 중요하다. 만일 우리가 '왜'를 묻기 전에 '어떻게'를 질문한다면 우리는 빈약한 기초 위에 집을 짓게 될 것이다'<sup>2)</sup> 라고

1) 박승배·나동진, 1999. 12. 교육정보화가 교사 및 학생에게 미칠 영향에 관한 비판적 검토, 『한국교육』 26(2) : 256.

2) H. Cuffaro. 1983. "Microcomputers in Education: Why is Earlier Better?" *Teachers College Record*, 85(4) : 563.

경고한 바 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어쩌면 우리는 빈약한 기초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행동을 지속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왜 디지털 도서관인가?' 라는 질문은 생략한 채 '어떻게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만 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기 때문이다.

이런 경향은 학교도서관도 예외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멀티미디어나 인터넷을 요체로 하는 디지털 학교도서관 담론들이 적잖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담론의 실체를 명확히 하고 그것의 적용가능성과 한계를 모색하는 것은 우리 학교도서관의 발전 방향을 탐색하는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작업은 우리 학교도서관을 교육 현장의 필수불가결한 기제로 위치 지우기 위한 근본적인 전략을 모색하는 길이기도 하다.

## 2. 디지털 학교도서관 담론의 맥락적 오류를 경계하며

디지털 도서관 담론은 일반적으로 컴퓨터 통신 테크놀러지의 진보에 따른 다양한 기술적 성과를 그 기초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 담론의 가장 주요한 논리적 토대는 기술의 발전과 그 가능성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리적 구조는 필연적으로 도서관 현상에서 운영의 기술적 측면 이외의 많은 중요한 부분들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는 헛점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가령 도서관이 지향하는 공공성의 원리나 민주성의 원리,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경향, 일상생활과의 관련성, 인간의 정보 수용 패턴 등 어쩌면 도서관 현상의 양상을 결정하는데 있어 더 본질적인 측면들을 배제하거나 간과한 논리적 구조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디지털 도서관 담론은 도서관 현상이라는 총체적인 견지에서 볼 때 적지 않은 오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도서관이란 현대 사회에서 '실제적인 필요(actual necessities)'에 의해 만들어져 왔기 때문이다.<sup>3)</sup> 말하자면 도서관이란 기술의 발전 경향이나 속도보다는 정보나 지식, 또는 그것을 담고 있는 구체적인 형태의 자료를 이용하는 현실 세계의 다양한 필요에 의해 그 모습과 기능을 규정받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학교도서관의 디지털 담론은 대학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 또는 전문도서관에서 논의되는 그것과도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것은 보편적으로 우리 학교도서관이 여타의 다른 도서관보다 더 저발전의 상태에 있으며, 또한 학교도서관은 교육 현장에서 직접적이며 상시적인 교육지원 기제로서의 기능을 가지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현재의 도서관 발전 단계와 디지털 도서관의 교육적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여타의 도서관에서 논의되는 디지털 담론의 수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도 디지털 학교도서관 담론의 맥락적 오류를 짚어 볼 수 있는 것이다.

3) Pierce Butler. 1933, *An Introduction to Library Science*, Illinoi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 xi.

### 1) 인쇄매체 중심의 학교도서관 현상은 존재하는가.

일반적인 디지털 도서관 담론과 마찬가지로 학교도서관의 디지털 담론에서도 나타나는 한 가지 맥락적 오류는 인쇄매체 중심의 전통적 도서관이 마치 보편적인 현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전제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도서관을 논의하는 대부분의 글은 첫 머리에 '이제는 전통적인 인쇄매체 중심의 학교도서관 개념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제는 전통적인 형태의 도서관을 넘어서 전자 매체 중심의 디지털 도서관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주장에 따르면 마치 인쇄매체 중심의 전통적 학교도서관이 완성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된다. 디지털 학교도서관 담론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그들의 주장은 전통적 학교도서관의 완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은 어떠한가. 우리 학교도서관 현장의 현실은 어떠한가 말이다. 인쇄매체 중심의 학교도서관이 각 학교 현장에 완성되어 있는가. 교육 현장 속에서 학교도서관 현상이 하나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통계 수치만 가지고도 그 상황을 알 수 있지 않은가. 실제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관찰을 하면 그 실상을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우리 학교도서관은 이름만 있고 실체가 없는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대부분의 학교도서관이 책 창고나 독서실, 기껏해야 도서 대여점 같은 기능으로 왜소화되고 왜곡된 상태로 남아 있지 않은가. 교수 학습 과정을 지원하는 자료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학교도서관

이 과연 몇 개나 된단 말인가. 말하자면 도서관 실 또는 도서관의 이름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그것이 하나의 정상적인 교육 현상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교실이나 운동장을 이야기하면 누구나 그곳에서 수행되는 일련의 활동을 떠올리게 된다. 그것은 전국의 어느 학교든 교실 활동과 운동장 활동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은 그렇지 못하다. 학교도서관이라는 교육적 공간이 보편적인 교육 기제로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 기능을 수행하는 학교도서관은 여전히 예외적이고 특수한 현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실의 상황이 이러하데 어떻게 인쇄매체 중심의 전통적 도서관이 완성된 것처럼 전제하고 디지털 도서관 담론을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인가. 인쇄매체 중심의 전통적 학교도서관을 완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디지털 도서관으로 돌파하자는 말인가. 이미 공공연히 그 죽음이 운위되는 인쇄매체는 미련을 두지 말고 새 시대에 걸맞는 첨단 테크놀러지로 무장한 도서관으로 학교도서관을 살려보자는 말인가. 일견 그럴듯해 보이는 면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이런 논리는 우리 사회의 맹목적 정보화 분위기를 끌고 가는 캐치프레이즈와 흡사한 면이 있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자' 라는 현실성 없는 구호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것은 현실의 복잡 다단한 구조를 깊이 보지 못하는 사고의 피상성과 의식의 허위성에 조급함이 어울려 빚어내는 허사(虛辭)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보화의 기반은 산업화이고 디지털의 토대는 아날로그

이기 때문이다.<sup>4)</sup>

또한 그것은 뛰어넘기 전략이라고 이름 붙여볼 수 있는 것인데, 무엇을 위한 뛰어넘기인가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학교도서관으로 넘어가는 것이 교육적 필요성이냐 이용자들의 요구에 기반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보 통신 테크놀러지의 발달과 그것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사람들의 필요에 편승한 것인지 하는 것이다. 최소한 그것이 도서관의 교육적 의의나 기능에 대한 충분한 성찰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교육에 정보 통신 기술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지적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용주의와 천박한 낙관주의에 젖어 정보통신 기술의 공학적이고 도구적인 활용에만 집착할 경우 예기치 않은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왜냐하면 정보화는 단순히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조직 원리, 삶의 방식, 그리고 도덕 의식 등의 변화를 수반하며 교육적으로 의사 소통, 인간 관계, 교육 지식과 교육 주체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이다.<sup>5)</sup>

학교도서관의 디지털 도서관 담론이 진정한 학교도서관의 발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인쇄매체 중심의 전통적 도서관이 보편화되지 않은 현실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전통적인 형태의 도서관을 완성하기 위해 투자해야 하는 비용과 노력을 회피하지 않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인쇄매체 중심의 전

통적 도서관을 보편화하려는 노력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로의 발전이 모색될 것이기 때문이다.

## 2) 디지털 도서관이 더 우월한 체제인가.

디지털 도서관 담론을 지배하는 또 하나의 맥락적 오류는 그것이 기존의 학교도서관보다 더 우월한 체제라는 믿음을 깔고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도서관 형태가 더 효율적이며 기능 면에서도 종이매체 중심의 전통적 도서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체제라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 만능시대에 이러한 믿음은 사실 새로운 것도 없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은 첨단인 것이며 전통적 매체들이 수행하지 못하는 기능들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우수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도서관이라는 사회적 기제로서 구현되었을 때는 기술 자체의 첨단성이 그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말하자면 도서관이라는 사회적 기제가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 그리고 성격의 측면에서 볼 때도 그 기술적 우수성이 그대로 반영되겠는가 하는 것이다.

디지털 도서관 담론 형성자들은 디지털 기술의 첨단성에 근거하여 디지털 도서관의 우수성을 선전하곤 한다. 디지털 도서관이야말로 전통적 도서관의 문제들을 깨끗이 해결해줄 수 있는 최선의 체제인양 이야기한다. 과연 그러한가. 컴퓨터 화면과 전산망을 통해서 이용자

4) 백육인, 2000. 디지털 세상, 거짓 신화를 넘어서기 위하여, 『미래의 얼굴』 3/4 : 67.

5) 손준중, 1997. 정보화사회에서의 교육적 의미: 그 가능성과 한계, 『교육사회학연구』 7(3) : 200.

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는 가상의 도서관이 현실 도서관의 한계를 모두 극복해 줄 수 있다는 말인가. 디지털 도서관이 전통적 도서관의 모든 한계를 극복하는 완전한 형태의 새로운 도서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 이에 대해 큐니(Terry Kuny)와 클리브런드(Gary Cleveland)는 통찰력 있는 안목을 제시해 준다.<sup>6)</sup>

그들에 따르면 '벽 없는 도서관'은 실제로는 기술적·법적·행정적인 문제와 같은 '새로운 벽을 가진 도서관'일 뿐이며, 물리적인 형태의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도서관도 이용자에게 많은 제약을 준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은 책을 담고 있는 건물이나 문헌으로 가득 찬 네트워크 상의 컴퓨터 그 이상으로 항상 존재해 왔다고 덧붙인다.

그렇다면 디지털 도서관이 전통적인 도서관보다 더 나은 체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비도서관적인 관점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의 원리와 철학에는 단순히 많은 정보를 빨리 전달해 주는 능력을 넘어서는 다양한 가치들이 내재되어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교수 학습 활동의 지원을 사명으로 하는 학교도서관의 경우야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디지털 도서관을 옹호하는 담론에서 발견되는 오류들을 큐니와 클리브런드는 디지털 도서관의 신화라고 지적한다.<sup>7)</sup> 첫째는 인터넷이 곧 디지털 도서관이라는 신화이다. 둘째는 단일의 디지털 도서관, 또는 디지털 도

서관 장서의 단일 윈도우 화면에 대한 신화이다. 셋째는 디지털 도서관이 언제, 어디서나 더욱 더 공평한 접근을 보장할 것이라는 신화이다. 넷째는 디지털 도서관이 인쇄매체 중심의 도서관보다 경제적이라는 신화이다.

디지털 도서관 담론에서 흔히 나타나는 이러한 왜곡된 통념들은 디지털 도서관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도서관을 통해 모든 정보를 다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디지털 도서관이 더 경제적이지도, 민주적이지도 않은 것이다. 다음의 증언은 이러한 원리를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준다.

디지털 정보의 혁명적인 성질을 거론하는 주장들은 누구나 모든 것에 빨리,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가설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전혀 모든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소유하고 있지 않다. 일부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현재 디지털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는 1%도 안 된다고 한다. 또한 누구나 온라인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다. 미국의 경우 10% 미만의 가구에서 인터넷 접근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화된 정보에 접근하고 검색하는 비용이 줄어들고 있으며 어떤 정보는 인터넷으로 얻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통신망에서의 검색은 아주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가능하고 그 밖의 다른 정보를 얻는 데에는 비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sup>8)</sup>

6) Terry Kuny and Gary Cleveland, 1998. "The Digital Library: Myths and Challenges", *IFLA JOURNAL* 24(2) : 107-112.

7) Ibid., pp. 107-108.

8) Marilyn Gell Mason, 1996. "The Yin and Yang of Knowing", *DAEDALUS: Books, Bricks, and Bytes*, Cambridge: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s, 재인용 : 김정근·김순화의 미간행 번역본 자료.

결국 디지털 도서관이 학교도서관의 현실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줄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하물며 학교도서관을 디지털 도서관 체제로 전환하여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ی겠다는 발상은 더 이야기해서 무엇하겠는가. 진산망 속의 가상 도서관이 교육 현장에 실재하는 복잡미묘한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현실의 구조 속에서 배태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현실의 조건을 개선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통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다. 실재하는 현실의 도서관에 관심을 가지고 가꾸는 것이 학교도서관을 살리는 길이며 그 교육적 기여를 실현하는 길이다. 이런 원리에 근거하여 디지털도서관은 전통적인 도서관의 한계와 약점을 보완하고 지원하는 수준에서 그 적용점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 3) 미국 학교도서관 현실이 우리의 교과서가 될 수 있는가.

디지털 도서관 담론에서 나타나는 다른 하나의 맥락적 오류는 미국의 학교도서관에서 그 모델을 찾아온다는 것이다. 미국의 어느 초등학교나 중학교 도서관에서 구현해 놓은 인터넷 도서관 체제에서 우리 디지털 학교도서관의 내용을 빌어 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연구자들이 생산한 이론들을 가져와서 그 논리적 근거로 삼는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미국의 학교도서관과 우리 학교도서관은 그 발전 단계에 있어 아주 다른 상황에 있다는 단순한 사실이다.

미국의 학교도서관은 오래 전부터 인쇄매체 중심의 학교도서관을 완성하여 교수 학습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기제로 자리잡게 했으며, 이미 1960년대부터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도서관 장서에 포함시켜 개발하고, 1980년대 이후에는 컴퓨터 통신 테크놀러지를 추가하여 자연스러운 이행단계를 밟아 왔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 그 교육적 원리와 기능을 고려하여 발전시킨 도서관의 현단계를 아직 기본적인 모습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우리 학교도서관에 적용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아직 정상적인 발육을 하지도 못한 우리 학교도서관에 장성한 미국 학교도서관의 외피를 가져다 씌우려 하다가는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켜 자연스러운 성장을 가로막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위해서는 미국 학교도서관의 현재 모습보다는 그 이전의 과정들에 시선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형태의 학교도서관을 완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으며 어떤 문제들을 극복하였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학교도서관을 위한 제도는 어떻게 개선시켜 왔으며 도서관의 운영은 어떤 점에 비중을 두어 왔는지, 교수 학습 과정과 도서관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연결시켰으며 사서교사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경영자와 교사, 그리고 학생들에게 도서관을 인식시키고 도서관으로 그들을 유도하는 원리와 방법은 무엇인지 탐구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미국 학교도서관으로부터 우리 학교

도서관의 나아갈 길을 찾고자 한다면 그 발전 단계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미국의 학교도서관 현실은 그것이 속한 역사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학교도서관 현실은 우리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처방은 우리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 학교도서관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술과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의식 없는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그것은 현실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학교도서관에서 인터넷을 활용한다고 해서 우리도 지금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주장은 깊은 성찰에 근거한 주장이 아니다. 미국의 학교도서관이 디지털 체제로 나아가는 추세라고 우리도 당장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름통 지고 장에 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우리는 우리 학교도서관이 처한 현실의 복합적인 구조 속에서 그 생존의 길과 전략을 찾아야 하고 새로운 기술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신중하게 성찰해야 하는 것이다.

### 3. 다시 원점에서 길 묻기

디지털 도서관 담론 속에서 우리 학교도서관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결국 근본적인 질문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학교도서관은 무엇이며 그 활동의 요체는 무엇인지, 학교도서관의 존재 의미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물리적 공간으로서 학교도서관의 의미는 무엇이며 실물 장서의 의미는 무엇인지, 사서교사의 전문적 리더십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으며 어떻게 강화해 나갈 수 있는지 등등의 질문들을 던져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근본적이며 기본적인 질문을 통해 학교도서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본질을 부각시키는 과정이 곧 디지털 도서관 담론과 같은 변화 국면을 슬기롭게 넘어가는 길이 될 것이다. 요컨대 디지털 학교도서관 담론에 대한 입장과 수용 자세도 학교도서관의 본질적 원리에 입각하여 정립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1) 학교도서관 활동의 실체는 무엇인가.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탐색해야 하는 과제는 학교도서관의 본질적 기능에 관한 것이다. 필자는 그것을 학교도서관 활동의 실체라고 표현하려고 한다. 학교도서관이 존재 의의로 삼는 활동의 실체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단순한 질문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견해에 따라 다양한 답이 가능한 물음이다.

필자는 학교도서관 활동의 실체를 '자료와 교육 과정의 통합'이라고 폭넓게 규정하고 싶다. 이렇게 규정하면 학교도서관 활동의 핵심은 도서관 자료와 교수 학습 활동을 연결하는 지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도서관 활동은 자료가 교수 학습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과 원리를 다양화하고 세련화하여 개입 정도를 확대해 나가는데 그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도서관을 어떻



게 실제 교육 과정에 참여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주요한 과제가 된다는 것이다. 학교도서관이라는 교육 기제를 교육 과정에 실제로 개입시키는 방법과 원리가 하나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도서관의 형태를 디지털화한다고 하여 그것이 획기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될 리는 만무한 것이다. 그것은 문제의 본질을 회피한 채 변죽만 울리는 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학교도서관 발전 단계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도서관이 필요하다기보다는 도서관과 자료를 교수 학습 과정에 개입시키고 연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가령 각 교과목과 단원에 맞는 자료를 개발하여 수업에 연계시키는 활동으로서 협동교수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작업, 독서나 논술 지도를 위한 자료를 개발하여 지원하며 나아가 도서관에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주도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도서관이라는 기제가 정상적인 교육 활동의 중심에 위치해야 한다는 원리를 학교 경영자와 교사들의 인식 속에 심어 줄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이 시급하게 요구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학교도서관 활동의 실체는 결국 그것의 교육적 적용을 통해서 유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도서관이 자랑하는 기술적 첨단성은 교육적 원리보다는 경제성과 효율성의 원리를 더 깊이 함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학교도서관 활동의 본질을 무리없이 수행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도서관을 전통적인 형태와 디지털 형태로 나누어 그 교육적 성격을 비교해보면 <표 1>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소 단순화한 비교이긴 하지만 학교도서관의 실체가 자료와 공간과 인적요소의 교육적 적용에 있다고 할 때 디지털 도서관은 본질적으로 많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기제로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이 공교육 현장에서 주요한 교육 기제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집약적인 정보전달 시스템으로서가 아니라 우선 전통적 형태의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형태의 도서관이 확립된 후에 그것을 추가하고 보완하는 차원에서 디지털 자원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 될 것이다. 학

<표 1> 전통적 학교도서관과 디지털 학교도서관 비교

구분	전통적 학교도서관	디지털 학교도서관
성 격	교육 활동이 일어나는 현실 공간	가상의 정보 전달 시스템
서비스 자원	실물장서, 공간, 사서교사, 기자재, 각종 프로그램	전산망에 연결된 컴퓨터, 각종 전자 정보원
교사, 학생의 자료 활용 패턴	주도적, 능동적 자료 이용	의존적, 수동적 정보 소비
교육적 지향성	다면적 교육, 경험 교육, 인성 교육	일면적 교육, 개인화 교육, 지식 정보 교육
사서교사의 역할	자료 개발, 가르침	시스템 관리, 정보 전달

교도서관의 기본적인 기능마저도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디지털 도서관을 도입하는 것은 자칫 자기 목에 칼을 채우는 어리석은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 2) 실물 장서와 현실 공간의 의미는 경시해도 되는가

학교도서관이 소장하는 실물 장서와 현실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없다면 굳이 전통적 형태의 도서관을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디지털 도서관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체제일 것이다. 그러나 과연 실물 장서와 현실 공간의 의미는 과소평가 해도 되는 것일까.

다른 관중의 도서관도 예외는 아니겠지만 특히 학교도서관에 있어서는 실물 장서와 현실 공간의 의미가 무척 크다고 할 수 있다. 실물 장서를 읽고 현실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을 이용하는 행위와 현상 자체가 많은 교육적 원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도서관의 컴퓨터 화면을 통해 인터넷을 누비고 다양한 데이터 베이스에 접속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권장할만한 바람직한 교육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단언하건대 그것은 이미 오락이나 가상 공간으로의 방향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읽고 생각하고 다양한 인류의 지식을 담고 있는 장서를 일별해 볼 수 있는 공간과 실물 장서야말로 근본적인 교육 원리에 적합한 요소인 것이다. 클리블랜드 공공도서관장인 메를린 겔 메이슨은 이러한

입장에 대해 명확한 지지를 보내준다. 좀 길지만 그대로 인용해 본다.

책은 실체다. 책은 공간을 차지한다. 책은 우리에게 과거, 현재, 미래를 제시한다. 책을 읽거나 책장을 넘기고 있으면 지나간 부분이 얼마나 되며 앞으로 남은 부분이 얼마인지를 알게 된다. 이 자체가 바로 순간적인 메시지에 대한 문맥을 제공한다. 즉, 손에 든 자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위치를 알게 하는 마음의 틀을 마련해준다. 이 문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의 가치 체계, 그 자체의 가정과 신념을 제공한다. 독자는 이와 같은 신념과 가치를 수용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독자는 적어도 그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만큼은 알게 되거나 알 수 있다. 하이퍼텍스트의 세계에서는 마우스에 의존하여 화면을 바꾸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문맥이 사라져서 한 문서에 사용된 어떤 용어가 다른 문서에서 같은 의미를 띄는지 어떤지를 독자들(또는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일은 데이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역사, 철학, 문학과 같이 고도의 개념적인 분야에서는 어려움이 많다.

디지털 정보가 속도를 내게 하는 것이라면 책은 속력을 낮추는 것이다. 디지털 정보가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정보를 더 빨리 얻도록 한다면 책은 우리로 하여금 잠시 머뭇거리며 읽은 것을 성찰하게 하고, 역사의 의미라든가 언어의 아름다움과 미묘함에 대하여 생각하게 한다. 전자매체가 손의 조작으로 세상을 빠르게 이해하도록 한다면 책은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켜 우리가 읽은 것을 반추하도록 하고 우리가 배운 것을 이해하도록 한다. 지식과 삶은 속도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디지털 정보는 우리에게 더 많은 사실을 더 빨리 알려주지만 책은 우리가 더 현명해지도록 한다.<sup>9)</sup>

9) 같은책., p. 167.

그녀는 또한 책이 문헌에 문맥을 제공한다면 도서관은 인류의 모든 지식에 문맥을 제공하며, 책이 지금 읽고 있는 페이지의 앞에는 무엇이 있었으며 뒤에는 무엇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시간 의식을 제공한다면 도서관은 문명의 역사를 제공한다고 한다. 결국 실물 장서와 현실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이 갖는 '공간성과 실체성' 때문에 사람들은 한 책이나 한 주제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폭넓은 지식의 바다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도서관 담론에 의해 묻혀 버릴 수 있는 실물 장서와 현실 공간의 역할이 도서관 현상의 본질을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학교도서관의 발전 단계에서 더욱 힘을 쏟고 강조해야 하는 것은 실물 장서의 확충이며 현실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을 확립하는 것이다. 단순한 정보센터가 아닌 포괄적 교육기관으로서, 학교 교육을 통합하는 교육 활동의 중심 기제로서 학교도서관의 위치를 지지한다면 실재하는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을 세우는 작업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할 것이다.

### 3) 사서교사의 설 자리는 어디인가.

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사서교사는 무엇으로 직업적 정당성을 유지해 가는가. 먼저 덮인 서고를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율학습 하는 학생들을 감독하는 사람인가. 그도 아니면 책 대여점의 점원처럼 책을 대출하고 반납 받는 일을 하는 사람인가.

학교도서관의 존립 기반을 그 교육적 적용에서 찾을 수 있듯이 사서교사의 역할 또한 같은 맥락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교수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자원센터로서의 '교육적 공간을 운영하는 것'이 사서교사의 직무라는 것이다. 단순한 사무 직원이나 자습 감독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수 학습 과정에 개입하는 통합적인 교육 기제인 도서관을 경영해 나가는 것이 사서교사의 설 자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사서교사의 존재와 활동은 학교도서관의 이념을 확립하고 지속시키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다.

동시에 사서교사의 직업적 경쟁력은 학교도서관이라는 공간과 실물 장서에 교사와 학생들을 끌어들이는 리더십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유용한 자료를 개발하고 조직하여 이용 효과를 극대화하는 적극적이며 주도적인 노력에 의해 사서교사는 전문가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자료와 공간, 그리고 이 요소들을 교수 학습 과정에 연결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장악함으로써 사서교사는 존립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디지털 학교도서관 체제에서 사서교사의 입지는 왜소화되고 왜곡되는 것을 면치 못할 것이다. 시스템 관리자나 기술자의 역할을 떠맡게 될지도 모르며, 정보와 이용자가 만나는 지점에 개입할 여지가 점점 좁아지게 될 것이다. 결국 지식정보자원의 관리자로서, 그것의 교육적 적용을 고무하고 지원하는 전문직으로서의 입지는 좁아져 급기야는 확립되지도 못하고 사라져가는 직업군에 포함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러한 원리는 교육정보화에 의해 교

사들이 탈속련화 되고, 남녀 교사간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교직에 대한 만족감이 저하된다는 실증적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다.<sup>10)</sup>

사서교사의 존립은 가상 공간의 관리자로서가 아니라 현실 공간의 책임자로서 모색되고 지속되어야 한다. 사서교사직의 리더십이 개발되고 확대되어 보편적인 교육 전문직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형태의 학교도서관을 지지하고 강조해야 하는 원리를 도출할 수 있다. 디지털 도서관에는 사서교사의 존립을 위협하는 '사이버' 혹은 '사이버' 사서교사가 등장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버드솔(William Birdsall)은 전자도서관의 도래에 상관없이 사서직이 도서관 현상의 중심에 주도적으로 서 있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사서는 과학기술이 지배해 버린 정보사회의 필연성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 도서관은 계속해서 사회적 교류, 이웃과 문화, 그리고 정서적이며 지적인 자극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가지게 될 것이다.
- 사서는 정보라는 한정된 분야에 집중하기 보다 지식을 수집하고 조직하고 배포하는 일에 폭넓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사서직은 고객이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것은 도서관에 지역

사회와 개인을 연결해 주는 교량의 역할을 부여했을 때 가능하다. 동시에 그것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인생에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서로간에 유대를 강화시키고 다양한 선택의 눈을 제공했을 때 가능하다.<sup>11)</sup>

#### 4. 나오며 - 지금 우리 학교도서관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우리 학교도서관의 발전단계에서 볼 때 그 길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학교도서관이 보편적인 교육 현상으로 존재하기 위해 선택해야 하는 길은 무엇인가. 디지털 도서관이 우리 학교도서관의 미래를 열어 줄 수 있을까. 필자는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현재의 상황에서 그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길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길은 의외로 가까이 있을지도 모른다. 황폐하고 침체된 우리 학교도서관 현장에서 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실체가 없이 허명(虛名)만 남아 있는 우리 학교도서관, 그 현실을 일으켜 세우고 개선하여 기본을 갖추는 것이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길일 것이다. 실물 장서와 현실의 공간, 그리고 전문적인 리더십이 주도하는 기본적인 수준의 학교도서관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10) 박승배 · 나동진, 앞의 글, 260-267.

11) William Birdsall, 1994. *The Myth of the Electronic Library: Librarianship and Social Change in America*,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Susan G. Kent, 1996. "America Public Libraries: A Long Transformative Moment", *DAEDALUS: Books, Bricks, and Bytes*, Cambridge: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s, 재인용 : 김정근 · 김순화의 미간행 번역본 자료.

길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디지털 도서관 담론은 우리 학교도서관의 생존을 모색하는 돌파구가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 사회의 교육정보화 담론처럼 현실적 적합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실용주의적 관점이나 방법적 처방 수준에서 만병통치약처럼 인식되는 기술적 수준의 가능성일 뿐이다.<sup>12)</sup> 또한 학교도서관의 현실적 제약들을 극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는 피상적인 현실 인식에 기반한 논리적 허구일 뿐이다. 이것은 교육 현장에서 현실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채 교육정보화를 통해 교육 개혁이 이루어질 것처럼 낙관하고 호도하는 담론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13)</sup>

궁극적으로 학교도서관이 이용자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찰해 보는 것도 디지털 도서관 담론 속에서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학교도서관에서 교사와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려고 하는 것이 단순한 데이터나 정보인지, 아니면 지식이나 그 이상의 무엇인지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만일 단순한 데이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학교도서관의 사명이라면 그 공간성이나 실체성이 그리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을 통해 의도하는 것이 더 복잡하고 깊이 있는 교육적 원리를 가진다면 문제는 달라지는 것이다.

에들러(Mortimer Adler)가 제시하는 ‘마음

의 네가지 자산’을 통해 이러한 원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인간의 네가지 마음의 자산을 정보(information), 지식(knowledge), 이해(understanding), 지혜(wisdom)라고 하여 정보가 가장 낮은 단계의 자산이고 지혜가 가장 높은 단계의 자산이라고 한다.<sup>14)</sup> 여기에 대해 크로포드(Walt Crawford)와 고어먼(Michael Gorman)은 정보의 단계는 컴퓨터나 전자 기술을 이용한 처리나 전달에 알맞지만 지식, 이해, 지혜로 올라갈수록 인간 정신의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해석을 덧붙인다.<sup>15)</sup> 학교도서관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보다 지식, 이해, 지혜를 고양하는 교육적 기능을 가진다고 하면 디지털 도서관은 적절한 대안이 아니다. 지금 디지털 도서관으로 건너뛰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전통적인 도서관의 한계와 비효율을 극복하고 개선하여 도서관 활동의 실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디지털 도서관을 수용하고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요컨대 디지털 도서관에 대한 논의는 어디까지나 기존의 도서관을 보완(complement)하는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지, 전적인 대체(replacement)의 개념으로 전개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학교도서관의 디지털 도서관 담론은 ‘거품 섞인 공격전술’의 성격을 띄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것은 표면적으로 화려하고 첨단적으로 보이지만 내면에는 위기의 씨앗이 자라는 조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12) 손준중, 앞의 글, 216.

13) 정영애, 1997. 정보사회의 교육 패러다임 변화와 딜레마, 『교육사회학연구』 7(3) : 177-198

14) Mortimer Adler, 1986. 『A Guidebook To Learning』, New York: Macmillan, 110-134.

15) Walt Crawford and Michael Gorman, 1995. *Future Libraries: Dreams, Madness, and Reality*, Chicago: ALA, 199.

김정근은 우리 학문과 현장의 위기가 문헌정보학의 실체를 붙들지 못하고 수단과 방법과 외피에만 현혹되어 거품 섞인 공격전술로 일관해온 풍토에 기인한다고 지적한다.<sup>16)</sup> 그는 우리 현장과 학문이 살기 위해서는 '도서관적 정신과 기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문헌정보학의 실체를 강화하고 현대화, 첨단화 시켜나가는 작업에 매달려야 한다고 역설한다. 디지털 도서관 담론 속에서 학교도서관의 길을 찾는 작업도 이와 같은 제안에 귀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디지털 도서관 담론 속에서 우리 학교도서관의 길 찾기에 좋은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제언을 경청하는 것으로 글을 맺는다.

우리 학문의 위기는 그 연구자들이 학문의 고유한 실체를 붙들지 못하는데 그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문헌정보학의 본질을 외면한 채 그것이 마치 전산학, 경영학, 언론학과 같이 이른바 사회적으로 뜨는 분야의 일부이기라도 한 것처럼 환상을 가졌

던 것이다. 그것은 일종의 특수를 노린 사행심이었다. 그들은 또한 미국을 비롯한 서양 추수주의자들이었다. 우리의 문헌정보현실은 그들의 것과는 분명히 다른 차원의 것인데도 학문은 그들의 것을 모방해 가려고 하였다. 현실은 다른데 언어는 같았다. 이것 역시 외적으로 화려한 유행의 배를 타고자 한 허위의식이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정보'와 '컴퓨터'는 부차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실체의 구현을 위한 수단으로만 위치시켜야 한다. 이미 우리에게는 그것에 대한 이렇다 할 발언권의 지분마저 없지 않은가? 거기에 너도나도 에너지를 다 사용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에너지는 우리 문헌정보학의 실체의 규명과 그것의 실현에 집중적으로 퍼부어져야 한다. 그렇게 규명되고 확립된 우리 학문의 실체를 바탕으로 오히려 다른 학문 분야와 협조하며 공헌하는 단계에까지 도달시키는 것이 오늘 문헌정보학 연구자에게 부과된 사명이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실체와 수단의 위치가 뒤바뀐 지금의 사태는 역전되어야 한다.<sup>17)</sup>

16) 김정근 엮음, 2000. 『우리 문헌정보학의 길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대구: 태일사, 3-10.

17) 같은 책, 5-6.

## 참 고 문 헌

- 김정근. 1997. 『디지털 도서관: 꿈인가, 광기인가, 현실인가』. 서울: 민음사.
- 김정근. 2000. 『우리 문헌정보학의 길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대구: 태일사.
- 남태우. 1998. 디지털환경에 있어서 '소장 대 액세스'의 패러다임 연구. 『국회도서관보』, 35(3): 3-50.
- 박승배 · 나동진. 1999. 교육정보화가 교사 및 학생에게 미칠 영향에 관한 비판적 검토. 『한국교육』, 26(2): 255-277.
- 백옥인. 1998. 『디지털이 세상을 바꾼다』. 서울: 문학과지성사.
- 손준중. 1997. 정보화사회에서의 교육적 의미: 그 가능성과 한계. 『교육사회학연구』, 7(3): 199-218.
- 이두영. 1996. "Into the Digital Age: A Complement or Displacement?",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0(4): 3-11.
- 정동열. 2000. 멀티미디어 학교도서관 구축방안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4(1): 93-109쪽.
- 정영애. 1997. 정보사회의 교육 패러다임 변화와 딜레마. 『교육사회학연구』, 7(3): 177-198.
- 최상기 · 김연례. 2000. 인터넷 학교도서관 미디어센터의 구현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31(1): 209-228.
- Butler, Pierce. 1933. *An Introduction to Library Science*. Illinoi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rawford, Walt and Gorman, Michael. 1995. *Future Libraries: Dreams, Madness, and Reality*, Chicago: ALA.
- Cuffaro, H. 1983. "Microcomputers in Education: Why is Earlier Better?" *Teachers College Record*, Vol. 85, No. 4: 559-568.
- Gilster, Paul. 1999. 『디지털 리터러시』. 김정래 옮김. 서울: 해냄.
- Gorman, G. E. and Miller, Ruth H. 2000. 『디지털 환경에서의 장서관리 이론과 실제』. 남태우 옮김.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Healy, Jane M. 1998. *Failure to Connect: How Computers Affect Our Children's Minds- for Better and Worse*, New York: Simon & Schuster.
- Kent, Susan G. 1996. "American Public Libraries: A Long Transformative Moment", *DAEDALUS: Books, Bricks, and Bytes*, Cambridge: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s. 207-220.
- Kuny, Terry and Cleveland, Gary. 1998. "The Digital Library: Myths and Challenges", *IFLA JOURNAL* Vol. 24, No. 2: 107-113.
- Lest, Michael. 2000. 『디지털도서관』. 김태수 등 옮김. 서울: 사이텍미디어.
- Mason, Marilyn Gell. 1996. "The Yin and Yang of Knowing", *DAEDALUS: Books, Bricks, and Bytes*, Cambridge: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s. 161-171.